50년사에 등장하는 인물이야기 〈 10 〉

주춧돌이 된 11개 시·도 창립지부장들의 프로필

– 시 · 도지부의 창립, 포석으로 상허는 천군만마를 얻은듯 의기양양하였다 –

寒梅山房主人 白 甫 ***정장섭***
(본회 상임고문)

단기4338년, 서기2005년, 간지로는 을유년이 밝았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해방 60주년을 맞는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분단 60년의 역사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기류는 60년전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난기류이고 평화통일은 오리무중이다. 우리협회 회우동지들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축원한다.

지난 연재 9회에서 각 시 · 도지부의 창립은 이미 이야기를 하였지만 1964년 7월 22일 경기지부의 창립을 스타트로 하여 9월8일 서울특별시지부의 결성을 끝으로 11개 시 · 도지부가 모두 창립되었다. 11명의 시 · 도지부장들은 4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아도 모두가 흙냄새 물신 풍기는 그 지역을 대표하고도 남을 훌륭한 지도자요, 인격자들이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협회창립채 1년도 안되어 11개시 · 도지부의 결성으로 조직적인 포석을 마친 상허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의기양양하였다. 창립 지부장들의 프로필을 역사에 단 한 줄이라도 기록으로 남기려니 보관되어 있는 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그렇다고 40년이 흐른 지금 나 스스로 취재를 나설 수도 없다. 이 영순 경기도지부장과 김 도석 전남지부장은 기록이 전혀 없어서 수소문하여 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순서는 시 · 도지부 결성, 창립 순에 따르고 괄호 안에는 생년과 현재의 나이를 참고로 표기하였다.

경기도지부 이 영 순 지부장 (1922 → 83세)

–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을 바친 목사

오류애육원 윤 천영 이사장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통화가 되었다. 이 글을 쓰는 이 시간까지도 아직 뵙지는 못하였다. 이영순 목사님께서 설립하시고 현재 교장으로 계시는 파주중 · 공고의 교사를 통해서 단절되었던 근 40년간의 행적을 입수하였다. 필자는 함부로 이 글에 손을 대기가 조심스러워서 원문을 거의 그대로 옮긴다.

송암(松庵)은 이 영순 교장 선생님의 아호. 걸어오신 파란만장한 발자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영순(李榮淳) 교장은 1922년 평안남도 용강군에서 출생하시어 평양 요한 신학교를 졸업한 후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펼치던 중 공산당의 종교탄압 정책이 심해지자 이를 피해 1 · 4 후퇴 때 단신 월남하셨다.

당시 전쟁 직후의 혼란한 와중에서 득병하여 경기도 광릉에 잠시 농사일을 하면서 기거하던 중 한없이 낙후된 우리 농촌의 현실을 몸으로 접하게 되면서 농업기술의 개선이 시급함을 절감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던 중 마침 뜻을 같이하던 건국대학교 설립자이신 유 석창 총장

등이 중심이 되어 마침내 전국농업기술자 협회 창립에 참여하고 이사회 의장직에 취임하여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이 영순 교장은 당시 광릉에서 2300여 평의 농토 위에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농업기술이었던 벼의 소주밀식법(小株密植法=心農法)이나 하우스 재배 기법 등을 연구 장려하고 이를 대농에서 발간하던 농업 기술전문지인 「농심」에 게재하여 크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1967(?)년에 송 석도 부총재와 함께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파일연수생 20명을 이끌고 선진 농업기술을 연수시키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이 영순 교장은 그러나 공업국으로 크게 부상하기 시작한 일본의 산업현장을 목도하면서 피폐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당장 산업 현장의 기술 인력의 양성이 시급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공업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학교설립을 위한 기초를 다지던 1960년대 전쟁 직후, 당시 파주 지역은 외인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민들의 급속한 전입으로 인근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수용이 어려울 정도의 참담한 실정이었으며 정규 중학교가 인근에 없어 대다수의 학생이 진학하지 못하고 부대 주변의 부랑아로 떠도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기지촌으로서 퇴폐풍조가 극심하고 각종 우범이 들끓는, 그야말로 교육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던 지역이었다.

이러한 파주 지역에서 이 영순 교장은 목회자로서 지역 복음화 운동에 힘쓰다가 학교 교육을 절실히 갈망하는 다수의 학생이 진학치 못하는 참상을 보고 바로 이곳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 1966년 학교법인 연풍학원을 설립,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성실한 한국인을 육성한다' 는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마침내 파주중학교를 설립하여 배움에 목마른 학생들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후 1969년 11월 때마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추어 공업입국을 지향하는 국가 정책에 병행하여, 참다운 기독교 교육에 입각한 전인적 기능인을 양성한다는 일념으로 한수이북으로서는 유일한 사학 공고인 파주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 영순 교장의 이러한 교육적 집념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기능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거나 혹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전문 기술인으로서 국가의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있으며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기능인을 배출하고 국가기술자격 우수교로 지정되어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최근 수년간 졸업생 전원 100% 기능사 합격 및 전원 취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칭찬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발전하는 정보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하여, 한수 이북으로는 처음으로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고 현대식 종합 실습관인 송암관, 다목적 교실, 멀티미디어 도서관 등을 신축하여 전국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교육시설과 각종 현대식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비하였으며, 지역 정보화 교육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영순 교장은 특히 학생들의 인성 교육에 치중, 교육에 대한 신념과 정신을 담은 설교집, 교장, 교사 훈화록, 명상록, 학교 신문, 교지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학생들의 자아실현 지침서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예체능 교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 본교 관악부가 대한민국 관악제에서 5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고 육상부, 축구부 등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

이영순 교장은 대외적으로도 교육사업을 위해 헌신해온 바, 기독교 감리교 계통 학교장회 회장, 전국 실업계학교 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공업계 학교장회 회장, 경기도 사립학교 법인협의회 회장, 전국 공업교육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교육계 발전을 위한 촌음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공로로 1985년 파주문화상 수상, 1986년에는 국민훈장 국민포장을 수상하고, 1994년 5월 한국 교육자

대상 스승의 상을 수상하여 교육계의 사표로서 길이 빛나는 귀감이 되었다.

이영순 교장은 일생을 복지사업과 교육사업에 묵묵히 헌신하여 오신 분으로 사비를 털어 결식을 하는 재학생들에게 오래 전부터 급식비를 지원해왔으며, 불우한 이웃과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독교의 교리를 몸으로 실천하자는 신념으로 살아오신 분이라 말할 수 있다.

교육계 일선에서는 헌신적인 교육자로, 목회 현장에서는 늘 소외 받고 가난한 자 편에 서서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목회자로서 그 소임을 다해온 이 영순 교장의 초지일관적인 삶은 과연 참다운 이 시대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남도지부 김 도 석 지부장(1907→98세)

– 농업증산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은탑산업훈장 수상

전남 광산군 효지면 송하리 245번지 현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동 한 소농에서 5남1녀의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명석하고 효성이 남다르다는 평을 받고 자랐다.

한문을 수학하다 앞으로 신학문을 배워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부모님 모르게 긴 머리를 깎고 광주 수창교 5학년 편입시험에 합격,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광주농업학교까지 마쳤다.

경력은 광산군청에서 공직을 시작, 효지면 부면장 재임시 광복된 후 초대면장으로 임명되어 3년간 근무하고 퇴임하여 광산과수조합(광주시금남로 소재 광주시, 광산, 화순, 담양군을 관할)의 부조합장으로 근무하다 조합장이 되어 5년동안 근무하면서 조합의 운영발전에 크게 공헌하다가 농협이 발족됨에 따라 조합이 해산되어 그 자리에서 농약과 종묘상을 7년간 경영 농촌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영농경력으로는 공직에 근무하면서 1939년에 집 뒤의 야산 5,000여평을 개간하여 배, 복숭아, 사과 등 과수원을 경영하여 전남지방에서 사과재배에 첫 성공사례가 되었다. 벼농사 역시 신농법으로 다수확선도농가로 여러 차례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하였다.

김도석지부장은 특히 효행이 지극하여 1954년에 전라남도유도회장으로부터 부부쌍효상을 수상한데 이어 1971년에는 광주향교의 전교가 주는 효행상을 받는 등 여러 단체로부터 수상하였고 형제간의 우애와 집안 간의 화목, 자녀들을 건강하게 기르고 가르쳐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여 타계하신 뒤 30년이 가까워오는 지금에도 주위에서 추모와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자무적, 대덕불고를 좌우명으로 삼아 만인을 대할 때 마다 언행을 조심하고 인정과 덕을 베풀어 왔으며 자택을 방문하는 모든 분을 누구나 반갑게 친절히 맞이하여 잘 접대하고 흐뭇하게 보내야 직성이 풀리는 분으로 심지어 동사무소에서 급사가 와도 과일을 접대해 왔으며 날아가는 새도 불러 먹이를 주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었다. 광주농고에서 학생들이 농가실습을 오면 친절하고 자상하게 지도해 주어 매년 실습학생들이 줄을 이어 왔으며 마을 앞 운동장과 창고 그리고 진입로 부지로 350여평의 촌전옥답을 기증하여 많은 찬사를 받았다.

1964년 11월 10일「다년간 농사에 종사하여 영농개선과 농산물증산지도에 적극 노력하여 왔을 뿐 아니라 향토문화 향상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2남 5녀의 7남매를 모두 훌륭하게 교육시키고 공직에 몸담고 있는 자녀들에게 매사에 남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항상 친절하고 덕을 쌓도록 훈도하였다. 이러한 훈도로 자란 장남 김 해권(73세)씨는 전남도청에서 농림직으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주곡자급달성을 위하여 국정의 주요시책으로 식량증산에 역점을 두었던 70년대에 농도전남의 농산과장으로 일하면서 두 차례나 봉황기를 수상하고 그 후 일선 시 · 군에서 농촌발전에 역점을 둔 행정을 펴 오다가 담양군수를 끝으로 1993년에 영예

롭게 정년퇴임하였다. 퇴임 후에도 광주근교에서 3,000여평의 유실수농장을 경영하면서 공직에서 행정, 교육, 지도, 시험기관에 근무하다 정년한 동료 5명이 뜻을 모아 광주 · 전남 자연농법연구회를 운영하다 지금은「21친환경영농법인」을 설립, 활동하고 있음은 모두가 선친이신 김도석지부장의 유지를 이어 받드는 일이라고 믿어진다. 김도석지부장은 생전에 광주시의 자문위원, 농협의 감사와 임원 등 평생을 지역사회와 농촌발전에 헌신하는 삶을 누렸다. (입수한 자료에 몇 군데 윤문을 하고 거의 원문 그대로를 옮겼음)

부산시지부 김 선 호 지부장(1917→88세)

– 씨없는 수박을 시장에 최초출하여 화제를 모은 소문난 독농가

동래는 온천장으로 유명하지만 일찍이 일제시대부터 일본인들에 의해서 원예가 발달하였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지만 해방 후 우장춘 박사에 의해 우리나라 원예의 요람의 터전이 된 농업과학연구소→중앙원예기술원→원예시험장도 일본인이 경영하던 '도리이농장' 이었다. 기후와 풍토도 원예의 적지였지만 무엇보다도 부산이란 소비도시를 가까이에 있었음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게다가 김 선호 지부장은 같은 지역, 가까이에 우 장춘 박사가 계셨기에 기술지도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김 지부장은 필자가 1955년에「새농사」를 창간하기 이전부터 중앙종묘(주)의 박 갑수사장과는 친분이 두터운 고객이었고 제1회 전국대회 때부터 참가하였다. 필자의 기억으로 이 무렵에 '우 장춘박사 하면, 씨 없는 수박을 연상' 할 만큼 씨 없는 수박은 모든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 시절에 김 지부장이 이 씨 없는 수박을 영리재배를 하여 서울에 출하해서 동아일보에 보도되어 유명해 졌음을 필자는 기억하고 있다. 김 지부장의 농장도 일인이 경영하던 농장으로 알고 있으며 자택도 일본식 건물이었다. 취재를 위해서 방문하면 집안과 농장이 깨끗이 정리, 정돈되어 있었고 성격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분이며 소문난 독농가로서 그 지역에서 신용이 대단히 두터운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동래원예조합 조합장, 부산시축협 감사, 부산시원예협동조합 이사를 역임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신망이 두터웠는가는 초등학교이지만 부산시약산국민학교의 기성회의 이사, 감사, 고문을 18년간 지낸 일로 설명이 충분할 것이다. 부산시농업증산대책본부의 위원으로도 활약하였다. 지부를 운영하되 소수정예주의로 일관하였고 떠벌이식의 허장성세를 제일 싫어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강원도지부 한 도 룡 지부장 (1915→90세)

– 성실한 농사꾼으로서 강원도 과수원예의 개척자의 한 분

기후와 풍토에서 과수농업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강원도의 춘천지역에서 사과농사를 일구어 낸 선구자의 한 분이다. 경북 영주출신이지만 일제 때 춘천의 일본인이 경영하는 청과상회에 취직하여 일하다 해방 후에는 청과상회를 직접 경영하였고 청과물의 유통경험을 살려서 춘천시 효자동에 사과원을 개원하였다. 1960년대 춘천의 영남농원이라면 전국적으로 그 명성이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하였다. 연구심이 대단히 강한 근면, 성실한 농사꾼이었다. 60년 제1회 전국대회에 참가한 이래 별세할 때 까지 42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대회참가의 기록을 생전에 늘 자랑하던 분이었다. 도지부 결성준비를 위해 농장을 방문하였을 때 자택기둥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를 말라' 는 성경 구절이며 온갖 좋은 글귀를 써 붙여 놓은 것을 본 기억이 지금도 떠오른다. 자녀교육을 위한 경구였을 것이고 본인의 생활신조였을 것이다. 자식들의 교육에 관한한 엄한 아버지로서 방학 때 놀리지 않고 반드시 농사일을 시켜서 근로정신을 심어주었다고 알고 있다. 그

리하여 자식농사로도 성공하신 분이다. 서울대농대를 졸업한 장남의 결혼식을 가을에 사과가 무르익은 과수원 야외에서 간소하게 올릴 때 상허 유 석창 총재님이 서울에서 먼 길을 가서 주례를 섰다. 이 일로도 상허의 동지애가 얼마나 돈독했나를 알만하다. 이 야외결혼이 당시 신문기사로 보도가 되었고 우리협회의 이념인 생활혁명을 실천하신 분이다. 경영의 어려움에 처한 춘천원예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추대되어 공선사후(公先私後)를 실천하는 정직한 조합장으로 지역농민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우리협회 역사에서 초창기의 주춧돌로서 지울 수 없는 인물이다.

전라북도지부 강 경 래 지부장 (1934→71세)

– 평생 교육자로서 29세에 은탑산업훈장을 받고 왕성한 농촌운동

62년 제3회 대전대회 때 산업훈장 수상자들을 대회에 초청하였을 때 처음 전국대회와 인연을 맺어서 42회 대회참가의 기록을 세우고 지난 '04년 11월 23일 제45회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성대하게 열어서 40년 지부장의 관록을 과시하였다. 40년 전 11개 시 · 도지부를 결성할 당시 지부장 중에서 약관 31세의 최연소 지부장이었다. 게다가 현재까지도 지부장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최장수 지부장의 기록을 세운 셈이다. 우리협회 뿐만 아니라 한 단체의 지부장자리를 40년간 지켜내는 기록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

남원농고와 공주사범대학 생물과를 졸업하고 건국대학 교축대의 석사와 박사과정을 이수하여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고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농촌운동만이 아니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전라북도경찰학교, 전주교도소 등 교육기관의 강사로 활동하였다. 62년도 29세 때 대통령상 및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평생을 중 · 고교 교사와 역사가 오랜 남원농고와 이리농고의 교장을 역임한 교육자이며, 사회활동과 농촌운동을 역동적으로 전개하였다.

경상북도 조 현 목 지부장 (1920→85세)

–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으로 협회자립을 일관되게 주장

조현목지부장은 61년 제2회 전국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을 때 경상북도농사원(5 · 16후에 농촌진흥원으로 개편)의 지도과장(당시 경북농사원장은 우리나라 과수원예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김성원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대회행사를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었다. 농사원의 지도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경북도내의 농촌지도자들과 유대가 넓었고 11개 시 · 도지부를 결성할 때 유일하게 경북만 이틀에 걸쳐서 행사를 할 정도였다. 대구농림과 일본에 유학하여 다꾸쇼구(拓植大學)을 나온 분이다. 농사원교도국기술보급과장, 61년교도국교도과장(57년), 경북농사원 기술보급과장(61년), 경북농촌진흥원지도과장(62년)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우리협회 경북지부장, 대구토지개량조합장(65년)으로 옮겨 앉으면서 관계를 떠났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일은 회의에 참석하여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초창기 우리협회의 나아갈 방향과 진로를 제시하고 경제자립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우리협회가 경제적으로 거의 전부를 유석창총재님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늘 고맙고 죄송합니다. 기왕에 지원해 주실 바엔 사업별로 매번 도와주시지 말고 한꺼번에 지원을 해 주시면 자립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라는 요지의 주장이었다. 상허는 이 발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곧 큰 액수의 자금마련이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 69년에 상허농촌복지재단을 발의하고 전국의 유력회원들을 순방할 때 조현목지부장 자택에서 하루 밤 신세를 지면서 격려와 재단설립과 운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아호는 범하(凡下)이시며 아드님도 경북대농대로 보내서 농심을 이어가셨는데 최근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하다.

경상남도지부 박 해 수 지부장 (1926→79세)

– 시설원예의 선구자였고 수상경력도 화려한 통 큰 농민

김해는 오랜 역사의 고을이고 비옥한 낙동강 하구의 충적토에다 기후가 온난하여 일찍이 농업기술이 발달하였다. '55년 그 무렵에 김해를 '한국의 덴마크'로 불릴 정도였다. 필자가 새농사의 취재를 위해서 박해수지부장의 농장을 찾았을 때의 놀라움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비닐하우스는 아무나 하는 농사가 아닌 고도의 기술농업이었다. 그래서 시설투자 등 위험부담이 따르기에 고작 몇 백 평을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상식이다. 당시 국내에서는 포리에치렌이 생산도 되지 않는 수입에 의존하던 시절인데 몇 천평의 대규모의 하우스는 마치 흰색바다와도 같았다. 박지부장을 처음 만났을 때 이글거리는 정열적인 인상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취재기자로서의 필자는 농장주인과 넓은 비닐하우스에 압도당해 놀란 일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만큼 배짱도 두둑하고 결단력도 있으며 스케일이 큰 인물로 보였고 사회활동도 적극적이었다. 김해읍 농업교도소 부소장('56년), 삼성초등학교 사친회회장('60년), 경남경우회회장('60년), 김해읍의회의장('60년), 김해군농협협의회위원('62년), 재건국민운동김해군촉진회장('62년), 경남농촌진흥위원('62년), 국민혁명공로상('62년), 산업훈장('63년), 5·16민족상(산업부문)본상('67년) 등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잊을 수 없는 일은 '65년 5월에 이사회가 박지부장의 자택(농장)에서 열렸다. 양계장 계사자리에 거적으로 벽을 치고 사과상자를 엎어서 탁자로 삼아 그야말로 기상천외의 회의장이었다. 유석창총재가 주재한 이날의 회의에서 역사적인 중요안건이 처리되었다. 이 회의참석을 계기로 유총재와 박지부장은 동지로서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졌다. 그 좋은 예로 '67년에 박지부장이 5·16민족상을 수상하였을 때 잘 나타난다. 마치 유총재 자신이 상을 받으시는 양 기뻐하였고 시상식에 김해에서 상경한 박지부장의 친지들에게 대학버스와 식사를 대접하는 등 온갖 편의를 제공하고 축하하여 주었다. 유 총재의 저서에 선도농가로서 박지부장이 소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충청남도지부 고 중 덕 지부장 (1923→82세)

충청남도지부 고중덕 지부장의 프로필은 이미 본 연재 제6회(2004.8월호)에 실려 있으므로 생략한다.

충청북도지부 류 중 렬 지부장 (1918→87세)

– 청주원협창립육성과 신기술과 신품종도입에 열성적인 온후한 지도자

충청북도지부의 창립을 앞두고 준비위원장은 홍성창 선생이시다. 홍선생은 지금 살아계시면 93세(1912년생)이시며, 청주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재배를 맨 먼저 시작한 개척자의 한 분이다. 마산의 여대기선생(본연재 제3회에 등장인물)이 '50년대 중반에 하우스재배에 유명하여 찾아가서 견학하고 기술을 지도받은 것이 친교의 계기가 되어 평생을 동지로 지내오신 분이다. 홍성생님은 청주지역에서 농민들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이신데 도지부 결성의 모든 준비를 다 해 두고 당시 청주원예협동조합의 조합장인 류중렬선생을 지부장으로 옹립하였다. 지부장이란 감투가 대단한 감투는 아니지만 감투에 연연하지 않고 적임자를 찾아내어 지부장으로 앉힌 일은 잊을 수 없는 미담으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류중렬지부장은 충북의 역사 오래고 많은 인재를 배출한 청주고보졸업('37년)하자말자 일제 때인 당시 금융조합서기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어 딛고 청주와 음성, 괴산의 각 금융조합의 부이사를 역임하고 청주원협의 초창기 이사와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조합을 육성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청원군농협감사('61년), 충북농촌진흥위원('61년), 그리고 청원군북일면에다 넓은 면적(?)의 과수원을 가꾸어 직접 과수농사를

지었고 지역농민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신품종과 기술 도입에 열성이어서 일본에서 과수의 신품종이 나오면 남 먼저 이를 도입하여 번식하고 보급하였다. 누구를 상대해도 온후한 성품에 호감이 가는 인격자였다.

제주도지부 임 국 립 지부장 (1910→95세)

– 과묵하고 외유내강의 책임감이 강한 지도자

'62년 대전에서 열린 제3회 전국대회 때 제3회 농업기술상은 박해수, 임국립, 방백수, 안재필, 네 사람이 수상하였다. 심사위원도 당시 농업계의 쟁쟁한 어른들이었다. 심사장소는 현 롯데호텔 자리에 있던 서울의 최고급 중국요리점인 '아서원'에서였다. 시상식 날 임국립 수상자는 수상통지가 늦은데다 교통과 거리관계로 시상식에 못 오고 세 사람만 본인이 직접 수상하였다. 42년 전과 오늘날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언 듯 이해할 수 없는 옛날 이야기 이다. 임국립 수상자는 이듬해 '63년 제4회 전국대회 때 종로5가 중앙종묘에서 혼자만 따로 상장과 부상을 박갑수 사장으로부터 받은 일을 기억하고 있다. 제4회 전국대회 때 제3회 농업기술상의 임국립 수상자께서 참가하여 협회창립에 동참한 것이 오늘날 제주도지부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이듬해 '64년 봄에 이진수사무국장과 필자가 제주도를 난생처음 찾아가서 임국립 선생을 만나서 제주도지부의 창립을 협의할 때만 해도 회원은 세 사람뿐이었다.

임국립 선생은 과묵하시고 근엄하시고 외유내강한 선비이시며, 책임감이 대단히 강하셨다. 초창기 우리협회의 이사회며, 각종 회의 때는 교통이 불편한 당시 결석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가까운 서울이나 경기지역 보다도 먼저 회의장에 시간에 어김없이 참석하시면 상허선생은 누구보다 반갑게 맞이하시며 '가장 먼 곳에서 가장 먼저 참석하셨다' 고 치하하시면서 환영하던 모습이 기억에 새롭다.

임국립 지부장의 자택은 북군한경면청수리로 필자와 이사무국장이 방문할 때는 산골이었다. 그 산골에서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으니 학벌의 고저가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제주의 최고학부를 나온 셈이다. 한경면의회의장('53년), 청수리이장('55년), 재건국민운동한경면촉진회장('61년), 제주도농업증산대책본부위원('62년), 북제주군농업개발위원('62년), 제3회농업기술상수상('62년), 반공상수상('62년), 농기협제주도지부장('64년) 등등 필자는 위에 간단하게 소개한 경력이 결코 시시한 감투(?)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모두가 자기희생이 따르는 봉사적인 감투이지만 그 지역사회에서 신망과 인격이 어떤 분이었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64년 8월 19일 제주국민학교에서 제주도지부 창립총회에는 근 200명이나 참가하여 성황이었다. 행사를 마치고 유석창 총재를 위시한 일행이 임국립 지부장의 자택으로 안내되었다. 귀한 큰 손님을 맞이한 임지부장 댁은 작은 잔치판이었고 닭을 잡고 푸짐한 제주의 토속음식에다 술도 맥주를 대접하는데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한여름에 더운 맥주를 극진히 권하는데 잔을 받아들고 쩔쩔매는 상허선생님의 난처한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 성천선생도 한 살 차이의 동연배로서 친분이 각별하였다. 모두 고인이 되셔서 저승에서 만나서 정담을 나누시는 광경을 상상해 본다.

서울특별시지부 송 석 도 지부장 (1918→86세)

본 연재 제4회(2004.6월호)에 송석도지부장의 프로필이 실려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열 한분의 시 · 도지부 창립지부장님들은 우리협회의 주춧돌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몇 분이 생존해 계시는지도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소식을 아시는 회우동지들은 필자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다. 모두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자료의 불실과 취재의 노력부족으로 이 정도로 밖에는 기록할 수 없는 필자의 무능이 부끄러울 뿐이다. 게다가 원고의 분량의 형평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바란다. A